SKD-61 · 11, SKS-3, SKH, S45C, SCM, SKT4
특수강 포스코특수강(주) 대리점
특수강의 모든 구매!
(주)동화특수강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2088-1번지(시화공단2바 201호
TEL : 031)432-0310 FAX : 031)497-9770

2016년
7월 18일~7월 24일
월요일
시흥 뉴스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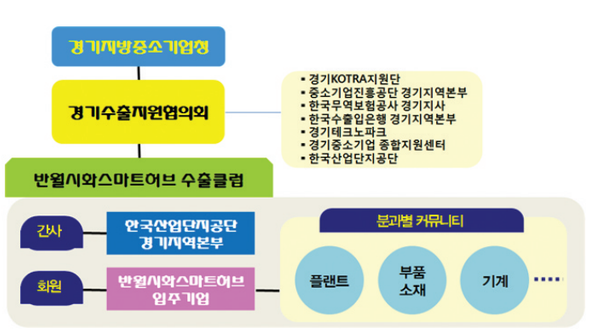
Open your dream! www.gtec.ac.kr
경기과학기술대학교
GYEONGGI COLLEGE OF SCIENCE AND TECHNOLOGY
대표전화 031-496-4555

“반월 · 시화스마트허브 수출클럽” 발족

산단공 경기본부, 경기지방중기청 수출 지원



▲ 사진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정인화 본부장과 경기지방중소기업청 서승원 청장이 반월 · 시화스마트허브 수출클럽을 발족하면서 기업인들과 단체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이다. 오른쪽 사진은 수출지원단 구성도의 모습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본부장 정인화)는 경기지방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지난 7월13일 오전 10시 30분 안산 호텔스퀘어 장미홀에서 안산 · 시흥 스마트허브(반월 · 시화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반월시화스마트허브 수출클럽 발족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스마트허브 입주기업의 수출프로그램 종합 지원을 통한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고, 특히 최근 대내외적 악재로 인한 수출부진으로 한국경제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됨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수출기업화, 수출기업의 수출 지속률 제고, 수출중단기업의 수출재개를 위한 지원 필요에 따라, 이에 대한 종합지원을 위한 “반월시화스마트허브 수출클럽” 발족식이 이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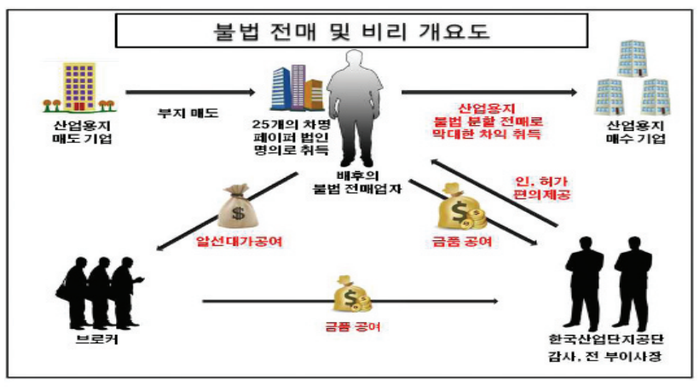
이날 행사에는 수출 지원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 뿐만 아니라, 경기지역 수출업무 주무기관인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 경기수출지원협의회 및 수출멘토단(KOTRA, FTA 지원센터 관세사 등)이 참여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간담회 등이 이뤄졌다.

정인화 경기지역본부장은 “국내기업의 신성장 동력은 무엇보다도 수출이고, 수출을 활성화하는 가장 중요합니다.”고 강조하며, “오늘 반월시화스마트허브 수출클럽 발족을 시작으로 수출기관과 기존 우수수출기업의 멘토가 되어 수출초보기업이 수출의 첫발을 디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출중단기업 또는 수출의 어려움이 있는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수출플랫폼 창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향후 산단공 경기본부는 수출클럽을 통해 무역아카데미, 소규모 커뮤니티(플랜트, 부품소재, 기계부품 등) 운영, 해외시장개척 등을 상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수출우수기업의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한 현장견학, 현장자문 등을 수시 실시하여 수출분야 전주기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가산업단지 대규모 전매비리 적발 ‘촉각’

시화MTV 사기분양 적발, 검찰 움직임 주시



▲ 그림은 최근 국가공단 전매비리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구미공단에서 발생한 비리 의혹 사건의 흐름도를 그림으로 만든 자료이다. 국가공단은 산업육성을 위해 엄격한 규정을 적용,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용지를 보급하고 있는 상황을 악용해 브로커들이 사기분양이나 용지 쪼개기 등을 통한 전매차익 등을 남기려는 농간이 끊이지 않고 있는 지역이다.

속보 국가산업단지 산업용지 불법 전매비리와 사기분양 등이 검찰에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산업단지 공급이 이뤄진 시화MTV 지역에 대한 검찰수사 파장이나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하고 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지난달 30일 구미 국가산업단지 불법 전매비리를 수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산업단지 전매업자, 전직 공단 임원 및 브로커 간의 비리구조를 적발, 4명을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이번 발표를 통해 차명으로 수 십개의 페이퍼컴퍼니가 동원돼 산업 용지를 분할 전매하여 197억원의 전매차익을 취득한 업자와 감독기관인 공단 전 감사가 그 업자로부터 5억4천만원을 수수한 부패 고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안산지청도 지난해 말 시화MTV 산업용지 사기분양 혐의를 잡고 불법 분양사건을 수사해 시흥 · 안산스마트허브 소재 B모 철강을 비롯해 D모 기업, K모 기계 등 3개 업체를 잇따라 적발해 기소했다.

검찰은 잇따른 산업단지 불법전매 및 사기분양 수사를 통해 적합한 제조업체 외에는 산업용지 취득이 금지돼 있고, 그 부지를 취득하더라도 일정기간 전매가 금지되어 있으며, 관리기관의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지만, 오로지 전매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산업용지 분할 매각 등이 자행되고 있음을 밝혀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 2011년 6월 28일 시화MTV 입주계약을 맺은 2개 업체와 같은 해 11월 25일 입주계약을 맺은 이들 산업단지 소재 업체들이 시화MTV 분양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여 산업 용지를 불법 분양받은 사실을 적발하고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

시화MTV 사기분양 사건에 대해 사정을 잘 아는 지역의 기업인들은 “산업단지 조성목적과 달리 산업 용지를 분할 매매하는 방법 등으로 매매차익을 얻는 사례가 시화MTV 지역에도 없다고 볼 수 없어 구미산업단지 대규모 부패 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검찰의 움직임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ABC 부수인증매체 www.kabc.or.kr 한국ABC협회

김경래 공인노무사, 본보 전문칼럼 게재

대한산업안전보건지도사협의회 부회장

본보는 이번 주부터 공인노무사 겸 산업안전지도사 김경래님의 인사노무칼럼을 연재한다.<관련 칼럼 2면>

필자인 김경래 공인노무사는 연세대 공대와 연세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뒤 한국산업기술대 최고영영자과정(ITP)을 수료하고 안산에서 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지역의 많은 기업인들에게 컨설팅을 하거나, 근로자들 노동사건을 맡아 처리해오고 있다.

특히 김경래 공인노무사는 산업안전지도사(화공안전 / 건설안전)와 손해사정사 자격을 갖고 있는데다 SK텔레콤 등 대기업에서 25년간 근무한 경험도 있어 기업인과 근로자의 상생을 위한 컨설팅에 적합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이다.

한편, 노무법인 일터 대표노무사로 일하고 있는 김경래 본보 전문 칼럼니스트는 SK텔레콤 제2노조 고문 노무사, 대한산업안전보건지도사협의회 부회장, 청담손해사정사회 고문 노무사, 중기청 비즈니스지원단 현장클리닉 위원, 한국산업단지공단 기업애로상담센터 전문위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컨설턴트와 국선노무사 일도 하고 있다.



중앙일보 · 뉴스라인
업무제휴협약서(MOU) 체결을 축하드립니다
중앙일보 뉴스라인

뉴스라인 경제

제489호 http://www.newsline.so 2016년 7월 18일 월요일 8

국민경제 주역인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든든한 파트너

전국 최초 경기 31개시 · 군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구축



▲ 서승원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

경기도 31개 시군에 67만 여개가 자리 잡고 있는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뿌리 역할을 하고 있다.

경기도 중소기업청은 우리경제가 지속성장을 하기위해 이러한 중소기업이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기업경영에 필요한 인력, 자금, 기술 판로 등 다양한 중소기업 육성책과 발굴을 돕고 있다.

전체 중소기업의 30% 생산액을 담당하며 300백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경기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지난 7월 1일 경기도지역 신문협의회 김숙자 회장 외 임원사 대표들이 서승원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을 만나 인터뷰를 통해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육성지원정책, 규제개혁 해소방안, 역점추진사업 등에 관해 의견을 들어봤다.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의 업무는?

본청 수립한 중소기업의 정책을 중소기업과 접점에 있는 지방청에서 정책이 왜곡되지 않고 기업에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집행하고 있습니다.

경기지역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1/3 이상이 밀집되어 있고, 높은 기술력과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우수 중소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의 애로사항과 사례를 시기적절하게 본청에 전달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출확대를 위해 31개 시군과 공동선언을 한 것으로 안다. 어떠한 내용인지?

경기지역은 우리나라 중소 · 중견기업 수출의 전초기지로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가진 우수기업이 수출을 주도하며 수출잠재력이 풍부한 기업이 다수 포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9일에는 중소기업청과 경기지역 31개 시 · 군은 전국 최초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수출과 일자리를 늘리는 획기적인 협력모델을 구축하기로 공동선언하였습니다.

공동선언 내용은 중소 · 중견기업을 수출 첨병으로 육성, 수출액을 배가하기 위해 5가지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5월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올해 중소기업청은 수출확대와 고용창출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수출확대로 금년 수출 10% 늘리기와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5천개 확보를 위해 다방면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청을 비롯해 경기코트라지원단, 중진공경기지역본부, 무보경기지사, 수출입은행경기본부, 무협경기본부, 산단공경기본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기수출지원협의회'를 매달 개최하여, 경기도내 수출지원기관 10개 기관이 협력하여 수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소비시장에 적합한 제품을 선정하여 디자인 교육부터 제품디자인 컨설팅, HOMI전시회(이탈리아 최대 소비재 박람회) 참여, 사후 수출지원 등 수출의 처음부터 끝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원예술대학교와 함께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HOMI전시회 참여 품목으로 적합한 50개사의 CEO 및 실무자에게 디자인 교육(4주)을 실시한 후, 참여기업 30개사를 최종 선정하고, 디자인 컨설팅을 통해 전시제품을 확정하여 9월 전시회에 참가, 수출활동을 진행합니다.

▲최근 중소기업청은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어떠한 지원정책이 있으며 경기청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최근 중소기업청에서는 중견기업법(14년 7월)을 제정 · 시행하여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지원제도를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용과 관련하여 중견기업 등의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에 근로소득증대세제(정규직 전환)와 청년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중견기업의 수출을 장려하고자 해외시장 개척, FTA활용, 마케팅, 전시 · 상담회, 컨설팅, 인력 · 교육, 금융 · 해외정보 등 중기청, 산업부, 미래부, 코트라(KOTRA), 무역협회, 수출입은행 등 11개 기관에서 72개의 사업(1,118억원 규모)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중견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R&D) 지원사업을 산업부, 미래부, 농식품부 등 11개 부처가 73개 사업(3조 5,560억원)을 통해 지원 중입니다.

아울러, 그간의 중견기업 정책이 직접적인 중견기업 육성시책에 부족했다는 점을 감안하여 월드클래스 300 등 기존 사업의 대폭적인 확대 · 개편과 함께, 중견기업 전용 R&D, 해외마케팅 사업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여성기업제품의 공공기관 판로지원을 위해서는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청에서는 여성기업제품의 공공분야에 대한 판로지원을 위해 법률을 근거로 하는 여러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공기관의 여성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2009년 11월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여성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을 권고에서 의무로 여성기업지원법을 2014년 1월 1일 일부개정하여 여성기업제품의 공공판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여성기업제품을 공공기관에 홍보하고 판로지원을 위해 매년 3회에서 4회 '공공기관과 함께하는 여성기업제품 구매상담회'를 회, 최하여 여성기업제품의 공공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특히 규제로부터 많은 애로를 갖고 있다. 경기중기청도 규제개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례는?

지난해, 경기중기청에서 발굴한 중소기업 규제 · 애로 건수는 77건으로 해당부처 법령(지침포함) 개정 요청 36건 중 14건이 '수용' 되었으며, 현장애로해결 41건 등을 포함하면 총 55건을 해결했습니다.

특히, 올해 '수용' 된 과제 중에는 작년에 건의한 9건이 포함되는 등 해당부처에 건의 후 과제가 '수용'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한 결과였습니다.

2015년에는 '제도적인 규제개혁'은 물론 중소기업의 현장에서 손톱 밑 가시와 같은 애로사항 등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규제개선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사례로 '공장설립변경완료 미신고 기업의 공장등록 허용 요청' 관련하여 A업체는 공장설립변경승인 신고 후 완료 신고를 4년 내에 이행하여야 하나, 행정 실수로 이행하지 못해 공장등록증 발급 불가. 그 사이 공장부지 일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해당업체가 지자체에 미이행 사유 등에 대한 소명할 것을 요구하였고 관련 법령 범위 내에서 공장등록이 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적극행정을 요구한 끝에 지자체에서 공장등록 "수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A업체는 공장등록증이 발급되어 판로개척의 어려움이 해소되었고, 중소기업 정책자금(시 · 도)과 조달청 나라장터 등에 신청 · 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

▲중소기업청 기술개발 지원사업 진행사항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은 중소 · 중견기업의 신기술 · 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 등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9,429억(전국, 2016년 기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업초기의 기업이 참가할 수 있는 창업성장기술개발(1,684억), 1인창조기업기술개발사업(204억)에서부터, 제품과 공정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사업 등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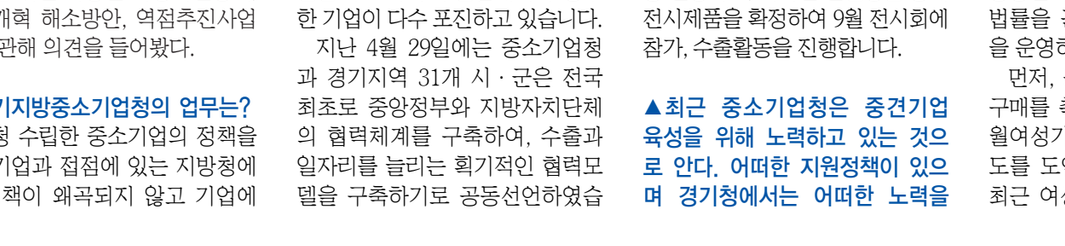
중소기업청 R&D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인터넷)을 통해 사업계획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또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특히, 2016년 R&D사업의 특징을 살펴보면 △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및 R&D 저변확대 강화로 '정부 R&D 혁신방안' 및 산업부와 역할 조정 등에 따라 '창업→중소→글로벌기업' 성장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11개 사업)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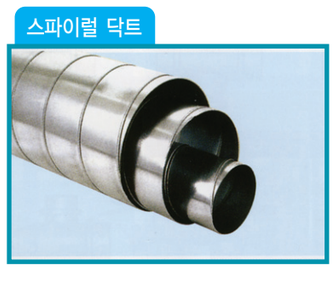


최고수준의 닥트기구 전문회사
鮮于産業
선우산업은 1995년 설립하여 Spiral Duct, Tarpaulin Flexibl Buct Hoses, Damper, Winding Pipe를 생산하는 전문 메이커로서 꾸준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타퓨린 후렉시블 닥트호스



스파이럴 닥트





안필환 대표

선우산업 SUNWOO FLEXIBLE
TEL : (031)315-9447~8 FAX : (031)315-9488
homepage : www.sunwoo21.kr
E-mail : sunwoo1571@hanmail.net

국내에서 가장
가벼운 안전화
「DDTX」
60년 전통의 세계적인 안전화 기술을 보유한 안전화 전문브랜드



Keep your safety
www.ddtxkorea.com



개성있는 디자인 | 편안한 착화감 | 안전화 본연의 기능 겸비

DDTX 문의 : 054)977-4944, FAX : 054)977-4846